진흥회게시판

'99년도 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 세미나 참가 안내

최근 우리 전자업계는 IMF 한파에 따른 극심한 내수불황지속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압박, 동남아에 이은 러시아의 외환위기 및 주요시장의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기업경영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구조조정 확산에 따른 실업급증과 내수불황이 지속되고 세계경제 침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과거 어느때 보다도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최근의 전자산업 동향 분석과 내년도 전자산업 경기전망을 통해 우리 전자업계의 경영계획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제공코자 전자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자정보산업 경기전망 조사 결과와 전자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분야별 전망을 중심으로 '99년도 전자정보산업경기전망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98.11. 27(금), 07:30-10:10(조찬)
나. 장소 : 인터콘티넨탈 Hotel
다. 참석대상 : 전자업계 대표 및 임직원
라. 참석인원 : 200명(선착순 마감)
마. 참가비(조찬, 자료비 포함)
 · 회원사 : 1인당 20,000원
 · 비회원사 : 1인당 40,000원
바. 참가신청 : 참가비 입금후 Fax 나 전화 통보
사. 참가비 납부
 · 예금주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 계좌번호 : 102-52373-254(한미은행)
아. 참가신청 및 문의처 : 본회 기획과
 TEL : 565-5803(내선 : 302)
 FAX : 555-6195

'99년도 전자산업 대상 시상계획

1. 목적

매년 전자산업을 결산하면서 분야별 유공자, 특히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포상하므로써 전자업계의 사기진작과 단합을 도모하여 우리 전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2. 시상종류 및 규모

구 분	시상종류	시상대상	시상규모
본 상	대상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전자 업체	1개사
	장려상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장래가 유망한 중소·중견기업	3개사 이내
공로감사패		전자업계간 상호협력 및 전자산업육성 발전에 기여한자	약간명
우수상	수출	해외 신시장개척, 신상품수출 등을 통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한 자	5
	기술	신기술개발, 부품 및 제품의 국산화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자	5
	기능	공정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5
	근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노사 협력관계 정착 등 일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	5
표창	-	부문상 신청자중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약간명

3. 신청(추천)기준

■ 大賞
· 업체 신청과 정부 및 본회에서 적격업체를 추천
· 신청(추천)기준
- '98년도 매출(또는 생산)증가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증가율이 30% 이상인 업체

■ 공로감사패
· 정부와 본회에서 적격자를 추천
· 추천기준
- 전자업계간 상호협력 및 전자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자

■ 우수상
· 개별업체에서 4개부문(수출, 기술, 기능, 근로)에 걸쳐 소속 임직원중 적격자를 신청
· 신청기준
- 수출 : 해외신시장 개척, 신상품 수출 등을 통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 기술 : 신기술 개발, 부품 및 제품 국산화로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한 자
- 기능 :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 근로 : 품질과 생산성 향상, 노사협력 등으로 일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
· 신청 규모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인 업체 : 각 부문별로 1명 이내, 총 4명까지 신청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업체 : 각 부문별로 2명 이내, 총 8명까지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추천)서 1부 (양식 별첨)
■ 공적서 1부 (양식 별첨)
■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수상(업체)자선정방법

■ 업체 신청과 정부 및 본회의 추천에 의해 별도의 심의기준에 따라 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공적심의회 : 산. 학. 연. 관 등의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

6. 신청기한 : '98. 12. 24(목)

7. 시상 : '99. 2월중(본회 정기총회시)

8. 접수처 : 본회 기획과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우)135-080
■ 전화 : 02-553-0941, 02-565-5803(교:303)
팩스 : 02-555-6195

정보통신 연구개발 자금 7천6백억 투입

내년도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에 총 7천6백억원이 투입된다. 또 내년부터는 다양한 과제를 선정, 백화점식으로 지원하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고도화와 인터넷 및 콘텐츠를 포함한 핵심 전략과제를 발굴해 이를 집중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형 연구개발 정책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출연금 3천3백억원, 융자 4천3백원을 포함 모두 7천6백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9년도 정보 통신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정통부가 책정한 7천6백억원의 내년도 연구개발 지원예산은 8천3백억원 규모의 올 예산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올 예산 가운데 1천억원이 실업대책용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늘어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고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감축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깨고 정통부가 이처럼 연구개발 자금 규모를 오히려 확대한 것은 국가 위기상황일수록 정보화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 원천 경쟁력을 확보하기

전략 핵심기술 개발분야

99년		비 고
구 분	품 목	
CDMA고도화	차세대이동통신시스템(IMT2000), 휴대통신 단말기, 무선가입자망(WLL·LMDS등)	98년도에는 통신기술분야, 전파방송분야, 정보기술분야, 부품기술분야로 구분 지원
인터넷활성화	전자상거래, 콘텐츠제작시스템, 고속LAN, 멀티미디어서버, 휴대정보단말기, 다기능복합ATM 등	
교육정보화	에듀테인먼트콘텐츠, ITV, 디지털방송시스템 등	
산업정보화	교통정보시스템(ITS),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치정보시스템(GPS), 우편자동처리시스템 등	
산업기반강화	평판디스플레이소자, 광저장·전송장치, 차세대RF(SIGe), 고속가입자모뎀, 고밀도전지 등	

위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통부는 오는 2002년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정보대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유능한 정보통신 인재를 가진 나라(Man Power-up) 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나라(Internet Power-up) 세계에서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Contents Power-up)를 실현한다는 MIC-UP 21을 새로운 정보통신 연구개발 비전으로 제시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CDMA 고도화, 인터넷 활성화, 교육 및 산업 정보화와 관련된 28개 분야 전략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선도기반기술 개발에 1천5백억원, 벤처 및 수출 중심의 상위 20% 유망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4천7백억원을 책정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에 총 6천2백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관련 FIFA 상업권보호 협조 요청

최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서 2002년 FIFA 월드컵 마크를 각기관의 물품, 광고, 홍보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략 표준기술 개발분야

99년		98년
구 분	품 목	
국제적선행 기술표준	차세대이동통신망, 무선가입자망, 지능망, 프로토콜, 차세대언어 및 API, 휴먼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멀티미디어 신호처리, 차세대인터넷, 통합망관리, 무선ATM관련 표준기술 등	ATM 프로토콜, 광통신방식, 무선CATV방식, 유무선통합망 프로토콜, 무선가입자망 등
정보화촉진 기술표준	전자문서교환, 인터넷문서 처리 및 관리 체계, 정보검색방식, 한글정보처리, 전자상거래,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표준기술 등	GIS, ITS 및 전자 상거래 관련 표준, 한글 정보처리방식, 구내통신설비 등

FIFA(국제축구연맹)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상업적 이용 권한을 독점. 배타적, 범세계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마켓팅, 공식음악, 미술, 포스터, 프로그램제작 및 지정, 컴퓨터데이타베이스, 경기장내 선전, 입장권, TV방송, 기록물에 대한 선전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FIFA 월드컵 마크를 사용한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FIFA는 대회조직 위원회에 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FIFA 월드컵 마크를 무단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무단 사용 사실을 FIFA가 인지할 경우,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공식 항의 및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민사상 및 형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FIFA 상업권 보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는 우리 조직위원회 해외사업부(Tel : 734-2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